



##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2014.08.22 | 김수현\_새사연 연구원 | sida7@saesayon.org

금융위기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빈곤율은 중요한 사회적 문제임이 틀림없다. 하지만 보다 심각한 것은 중고령층 빈곤율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중고령층 빈곤율을 보이는 국가로, 중고령층 빈곤율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심화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금융위기 이후 완화추세를 보이는 빈곤율, 하지만 여전히 높아

소득은 소비의 가장 중요한 원천으로 삶을 질을 결정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이다. 소득 수준의 하락은 필요로 하는 만큼의 소비를 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하게 하고 그것은 다시 삶의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소득 수준이 매우 낮은 빈곤 가구들의 경우 기본적인 욕구도 충족하지 못하며 생계를 유지하기도 힘든 위협에 노출되게 된다는 측면에서 사회적 문제로 이야기되고 있다. 이처럼 빈곤에 처한 가구는 스스로의 소득만으로는 생계를 유지하기 힘들기 때문에 정부는 이들을 빈곤으로부터 탈출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과 함께 이들의 생계유지를 돕는 여러 정책들을 실시해 왔다.

통계청이 발표하는 소득분배지표에 따르면 이런 우리나라의 빈곤 문제는 금융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중위소득 가구 소득<sup>1)</sup>의 50%에 못 미치는 가구들을 빈곤 가구로 보고 그 가구에 속한 인수로 빈곤인구의 규모를 측정할 때 상대적 빈곤율을 보면,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빈곤율이 2010년 이후 상대적으로 완화되거나 이전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가구가 사적 시장에서 벌어들인 소득을 의미하는 시장소득<sup>2)</sup>을 기준으로 했을 때나 실제 소비에 사용할 수 있는 소득을 나타내는 처분가능소득<sup>3)</sup>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관측된다.

1) 소득은 가구원 수의 차이를 감안하여 균등화지수로 소득을 나눈 값을 사용하고 있다(예를 들어 균등화 가처분 소득은 가처분 소득 ÷ 균등화지수를 통해 계산됨). 균등화지수는 OECD와 동일한 가구원수의 제곱근을 통해 계산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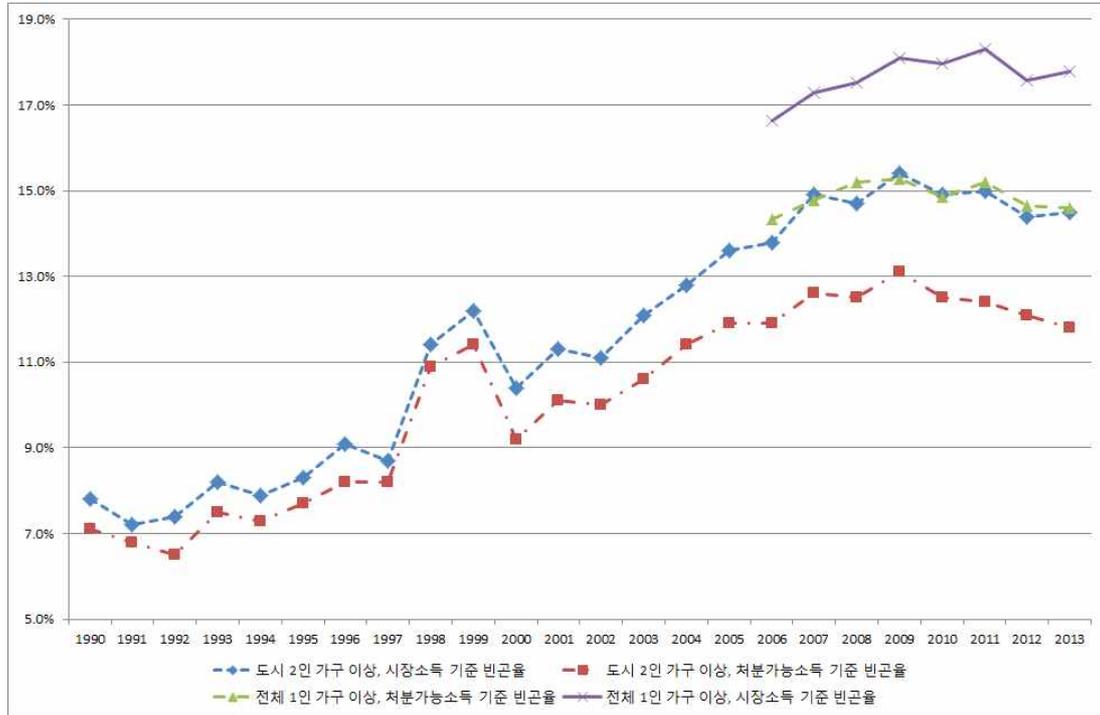
2)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사적이전소득의 합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 1] 처분가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과 시장소득 기준 상대적 빈곤율 (단위 : %)



※ 출처 : 통계청 홈페이지

이처럼 통계청이 제공하고 있는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에 따르면 불평등 수준과 함께 빈곤율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2013년 현재 도시 2인 가구 이상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1.8%,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한 상대적 빈곤율은 14.5%로, 금융위기 이전인 2000년대 중반 수준과 비슷한 수준이다. 이는 1997년 경제위기 직후보다도 더 높은 수치이다. 경제위기 이전과는 더욱 큰 격차를 보인다. 더구나 2006년 이후부터 조사된 1인 이상 전체 가구를 기준으로 하면 처분가능소득 빈곤율과 시장소득 빈곤율은 각각 14.6%와 17.8%까지 늘어난다.

###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는 중고령 빈곤문제

높은 빈곤율도 여전히 중요한 문제이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중고령 빈곤문제이다. 우리나라는 OECD 회원국 중에서도 중고령층 빈곤율이 가장 높은 국가로 이전부터 중고령 빈곤문제를 보다 중요하게 다루어야 한다는 지적들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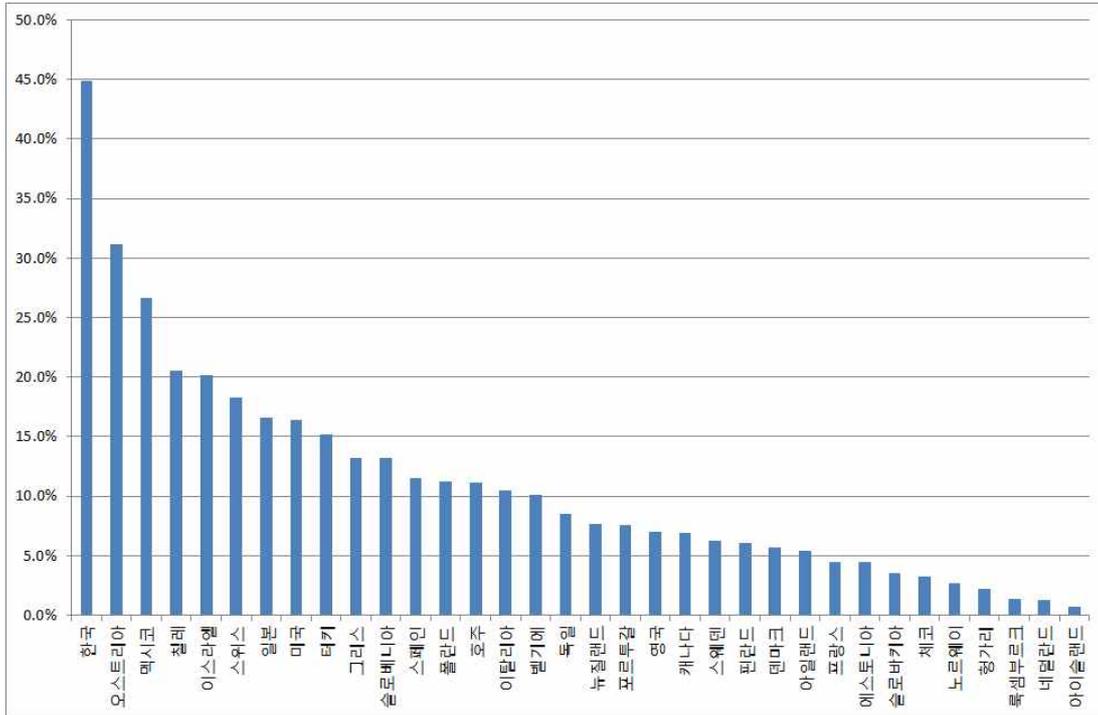
3) 시장소득+공적이전소득-공적비소비지출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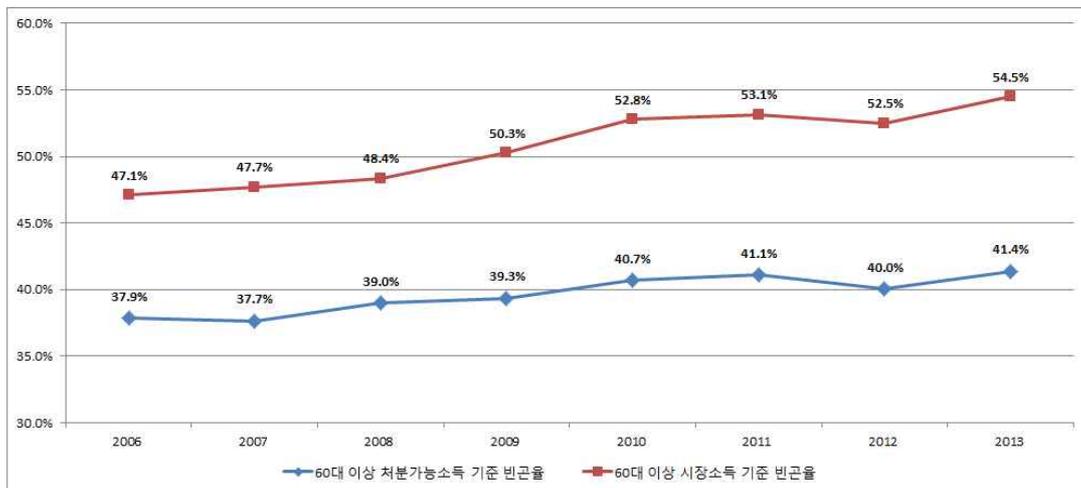
[그림 2] OECD 회원국의 65세 이상 고령자 빈곤율 (2010년) (단위 : %)



※ 출처 : OECD 홈페이지

※ 가장 많은 국가들의 통계가 있는 2010년을 기준으로 작성. 단, 2010년 통계가 없는 칠레(2011년), 스위스(2011년), 일본(2009년), 뉴질랜드(2011년), 헝가리(2009년) 등은 2011년이나 2009년 자료를 이용함

[그림 3] 60대 이상 중고령 빈곤율 (1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단위 : %)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중고령층 빈곤문제는 다른 연령층에 비해 더욱 심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전체 연령대의 빈곤율이 완화되는 양상을 보인 금융위기 이후 기간 동안에도 중고령층 빈곤율은 더욱 상승한 것이다.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자료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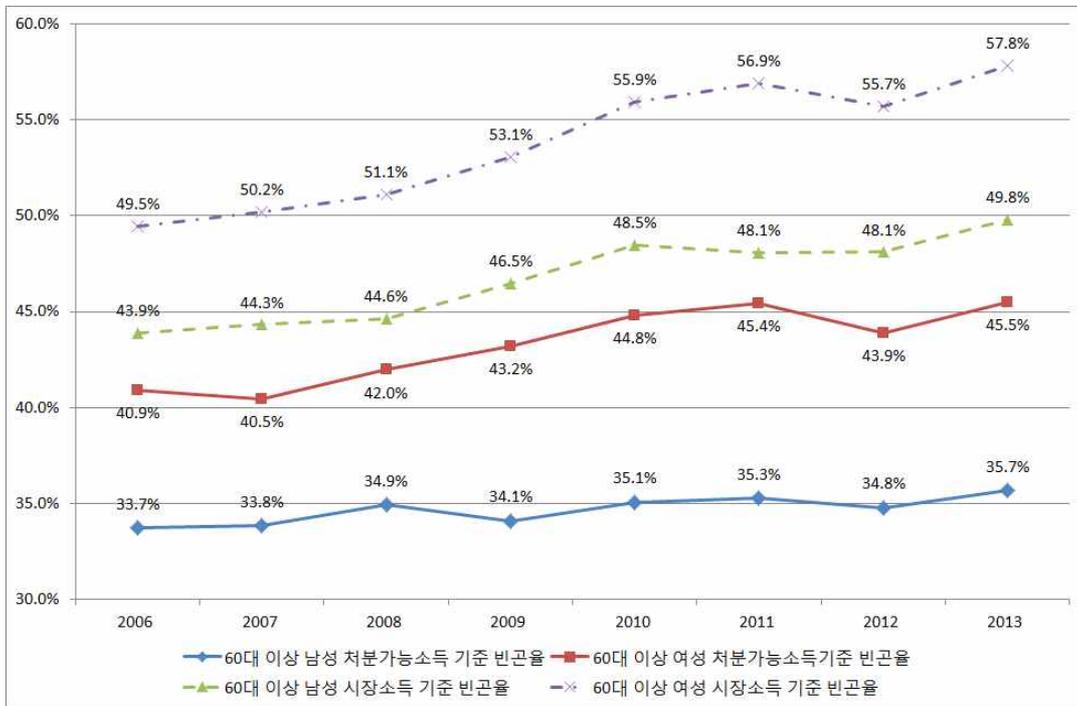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을 이용해 구한 60세 이상 중고령층 빈곤율을 보면 처분가능소득 기준 빈곤율과 시장소득 기준 빈곤율 모두에서 2012년을 제외하고는 계속 빈곤 상황에 직면한 60세 이상 중고령자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현재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60세 이상 중고령 인구의 절반 이상인 54.5%가,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는 41.4%가 빈곤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또한 이러한 빈곤문제는 상대적으로 중고령층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 더욱 심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앞서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소득분배지표 관련 자료를 통해 60세 이상 남성과 여성 인구의 빈곤율을 구해보면 처분가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와 시장소득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모두에서 중고령층 여성의 빈곤율이 남성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60세 이상 여성들 중 빈곤상황에 처한 인구의 비중이 남성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 크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중고령 여성들의 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함을 의미한다.

[그림 4] 60세 이상 남성과 여성 빈곤율 (1인 이상 전체 가구 기준) (단위 : %)



### 중고령층 빈곤문제 해결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 있어야

이러한 중고령자들의 빈곤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방안으로는 공공근로를 통한 방안, 연금 확대 정책, 기초소득 강화 정책 등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우선 공공근로를 통해 중고령층 빈곤문제를 완화시키는 방안은 중고령자들에게 그들이 할 수 있는 공공근로 일자리를 제공하고 그 일을 통한 소득을 통해 빈곤상황을 개선하는 것으로 지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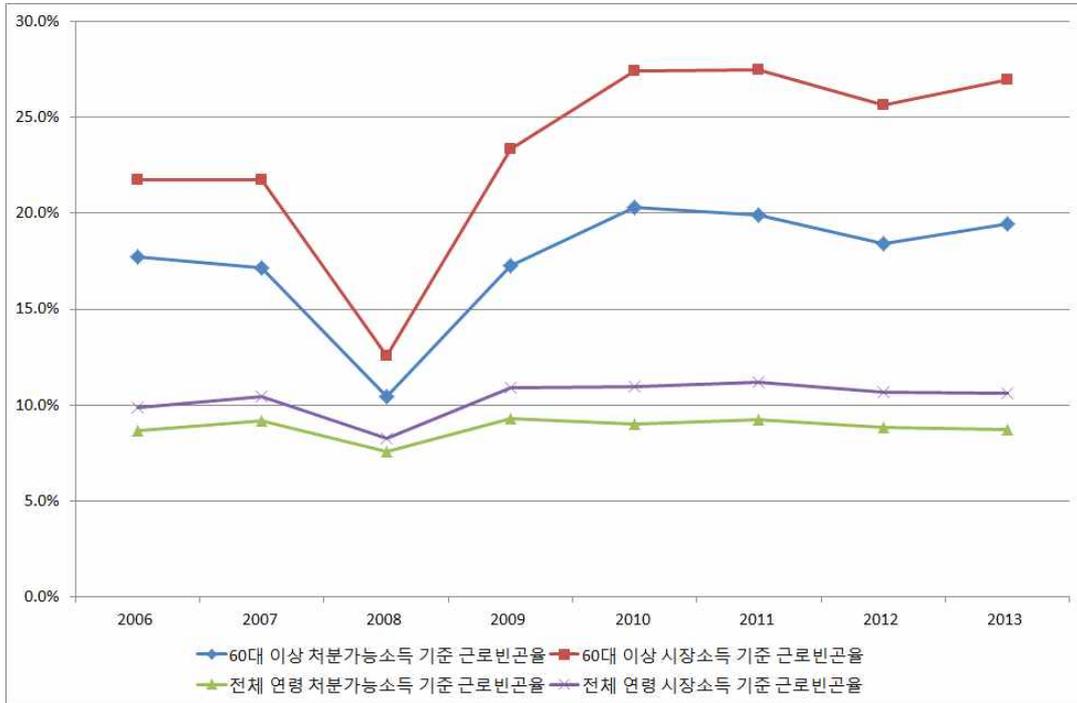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추진했던 정책 중 하나이다. 하지만 공공근로 일자리를 통해 중고령층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은 일자리 수가 제한되어 있고 낮은 임금 수준으로 인해 중고령층 빈곤문제를 해결하는 데 큰 효과를 거두지는 못한 것으로 평가된다. 공공근로를 통해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 때문에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해 근로빈곤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그림 5] 전체 연령대 및 60세 이상 중고령층의 근로빈곤율 (단위 : %)



이런 특성을 가지는 것은 공공근로 일자리뿐만이 아니다. 정부의 지원이나 지자체의 지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중고령층 일자리의 상당 부분, 그리고 민간의 중고령층 일자리의 상당 부분이 직면하고 있는 현실이다. 그렇기 때문에 60대 이상 중고령층은 빈곤율도 높지만 근로빈곤율도 높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는 노동시장에 진출할 수 없기 때문에 빈곤상황에 처하는 경우가 많은 동시에, 노동시장에 진출한다고 하더라도 낮은 임금으로 인해 마찬가지로 빈곤에 노출될 가능성이 큰 중고령층의 현실을 반영하는 것으로 중고령층 빈곤문제 완화에 있어 기존의 일자리, 노동시장 진입 정책만으로는 한계가 있음을 의미한다. 즉, 공공근로나 노동시장에 중고령자가 진입할 수 있게 하는 정책이 중고령 노동시장의 질적 수준 개선 정책이나 다른 중고령 빈곤층에 대한 지원 정책과 함께 수행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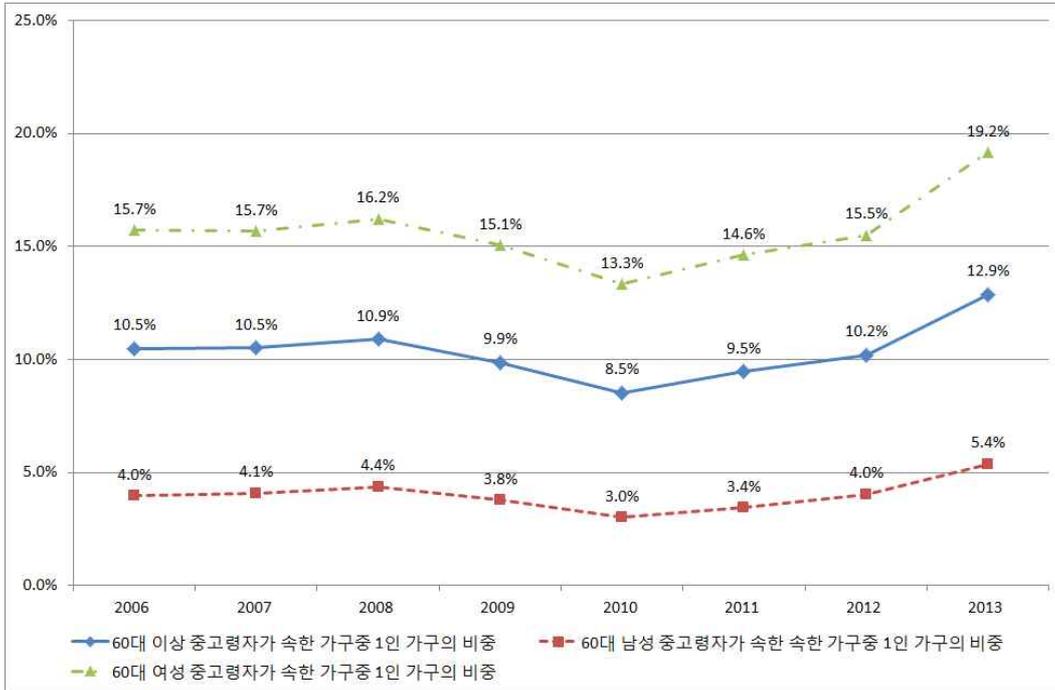
연금과 기초 소득의 확대 역시 중고령층 빈곤문제를 완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정책 방안이다. 최근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중고령층에 대한 기초소득 확대 역시 이러한 방안 중 하나이다.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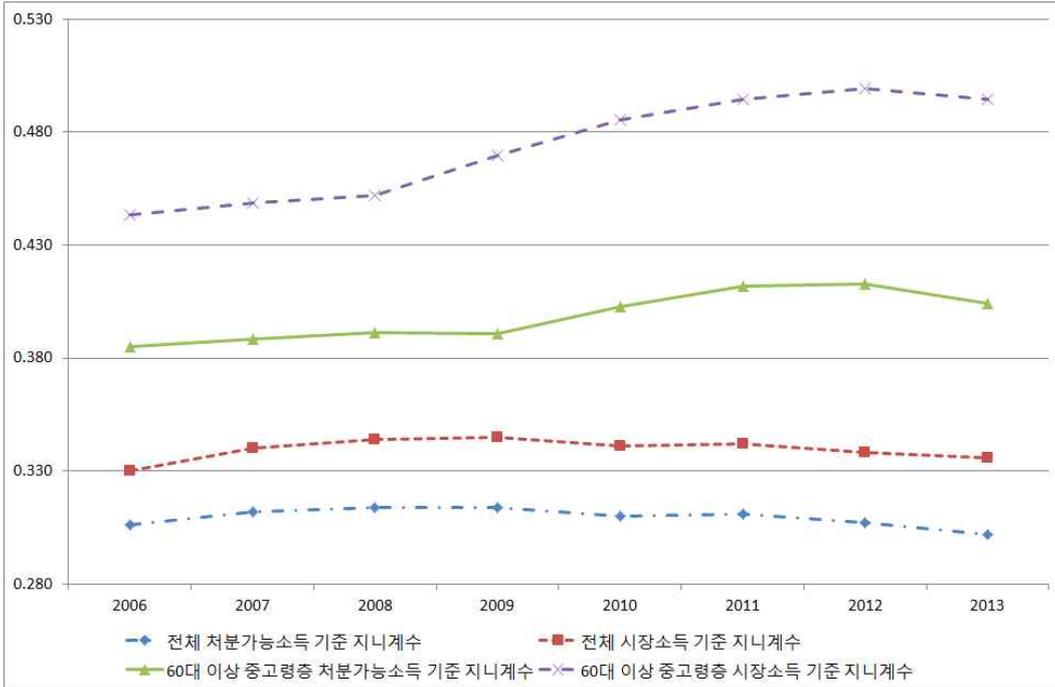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그림 6] 60세 이상 중고령층이 속한 가구 중 1인 가구의 비중 (단위 : %)



[그림 7] 전체 연령대 및 60세 이상 중고령층 지니계수



60세 이상 중고령자 중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비중이 증가하고 있고, 연령대별로 구분해서 보았을 때 다른 연령대에 비해 60세 이상 중고령자들의 소득 불평등 수준이 높은 현실을 고려했을 때([그림 7] 지니계수 참조) 이들에 대한 기초 소득 확대 정책은 궁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상대적으로 빈곤율이 높고 1인 가구의 비중이 큰 여성 중고령자들이 직면한 빈곤 위험을 완화하는데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런 기초 소득 확대 정책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높은 수준에서 결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정부가 계획하고 있는 지급 수준에서 보았을 때 연금과 연계된다고 해도 상당 수 중고령층 인구는 빈곤 상황에 노출될 위험이 크고 중고령층 빈곤상황 개선에 있어서도 제한적인 성과를 거두는데 그칠 가능성이 있다.

문제는 역시 비용이다. 기초 소득의 확대는 상대적으로 큰 비용을 초래하는 정책 방안이다. 하지만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해 중고령층 빈곤율은 높지만 이들에 대한 상대적 지원수준은 낮은 현실을 고려하면 지금보다는 지원 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고령 빈곤층의 경우 소득 증대가 소비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최근 정부가 추진하려 하는 내수 성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



## 2014년 새사연 발간 보고서

2014년 8월 22일 현재

아젠다	발간일	제목	작성자
세계경제	1/15	지뢰밭 속 순항?	정태인
한국경제①	1/16	스스로 지뢰밭을 만들고 있는 박근혜 정부	정태인
한국경제②	1/17	747에서 474로 갈아탄 근혜노믹스	여경훈
복지①	1/20	박근혜 정부식 보건 의료, 민영화 폭탄	이은경
돌봄	1/21	진정한 '국가 책임 보육' 이 되려면	최정은
주거	1/24	주택시장 죽이기에 골몰하는 정부, 어찌 하오리까	강세진
노동	1/28	사라진 공약, 반복되는 노동시장 문제들	김수현
복지②	1/29	노인, 대학생, 취약계층 복지 정책 실종	이은경
노동	4/14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에 답 있다.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17	청년들이 원하는 '좋은 일자리' 는 무엇인가?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노동	4/21	서울 청년일자리정책 새 방향 제안	김수현, 강세진, 최정은
주거	5/12	노인복지의 주요 이슈, 주거	강세진
경제	5/19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①	정태인
정치	5/22	민주주의의 수호자는 누구인가	이은경
경제	5/26	피케티의 "21세기 자본", 그리고 한국 경제 ②	정태인
노동	6/2	노동자를 위한 나라는 없다	이은경
경제	6/5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①	강세진
경제	6/16	도시가계의 지출구조 진단 ②	강세진
복지	6/17	박근혜 2기 개각, 복지축소와 민영화의 신호탄?	이은경
경제	6/19	대기업 지원정책으로 전략한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이상호
의료	6/23	박근혜 정부의 독주에 브레이크를	이은경
의료	6/26	이제 그런 핑계 대지마	이은경
복지	7/10	돌봄서비스의 현주소와 발전방향 제언	최정은
노동	7/14	여성 노동시장에 대한 질적 개선 정책도 추진되어야	김수현
경제	7/29	소득 불평등 지표 개선, 앞으로도 계속 될까?	김수현
사회적경제	8/4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1) : 사업이 번창해도 실패한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5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2): 치열한 시장경쟁에서 살아남지 못하다	이수연
사회적경제	8/8	해외협동조합실패사례(3): 무리한 확장과 무관심이 발목을 잡다	이수연
경제	8/22	여전히 심각한 빈곤문제, 더욱 악화된 중고령층 빈곤	김수현

승자독식의 신자유주의에서 벗어나 신뢰와 협동으로 함께 살아가는 사회, 새사연이 그리는 미래입니다.

더 큰 걸음으로 움직이고 성장하는 새사연, 이제 여러분이 회원이 되어 함께 해주세요.